

# 해남군자원순환센터 연간 2만명 방문

1만 5000여명 재활용품 교환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70여회  
지역 자원순환 랜드마크로 부상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가 한 해 2만여 명의 방문을 받으며 자원순환의 랜드마크로 뜨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24년 5월 개관한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교육·체험·나눔을 한자리에서 경험하는 복합시설이다. 센터는 2020년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전남에서 처음으로 건립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에는 1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단체 견학은 74개팀, 약 1400명이 자원순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주말에 열리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에도 70회 이상 진행돼 700여 명이 참여했다. 자주 쓰지 않는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물품 센터를 통해 약 2만 3000여건 물품 대여가 이뤄졌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유롭게 나누는 나눔 선반도 가족 단위 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올해 '오래 쓰고, 오래 사용하는 지속 가



해남군 자원순환센터가 교육 체험으로 수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능한 삶'을 핵심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일상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기술 교육,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 감수성 프로그램, 자원순환 체험 등을 강화한다. 지난해 여름방학 운영한 '자원순환탐험대'를 확대해 '자원순환탐험대'와 '자원순환구조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환경 전문가 초청강연으로 2월에는 남종영 작가를 초청해 고래를 비롯한 동물권과 인간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금화동 3-8번지 가옥 등 4건 목포시 향토유산 신규 지정

목포시가 근현대 목포의 역사와 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향토유산 4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엔 지정된 향토유산은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 목포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2동, 북교동 143-2번지 가옥, 연산배수지로 주거·교육·도시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유산이 고루 포함됐다. 금화동 3-8번지 가옥은 1936년경 건립된 근대 가옥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택 양식에 서양식 응접실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가 특징이다. 일부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으나 해방 이후 일본식 가옥에 우리나라의 바닥 난방 설비가 접목된 사례로서 근대 주거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명여학교 옛0 선교사 사택 2동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여학교인 정명여학교 부지 내에 건립



목포 금화동 3-8번지 일제 강점기 가옥.

된 선교사 주거 공간이다. 주요 석재와 창틀 등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83년 내부 수리 과정에서 1919년 당시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발견돼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의미 또한 높게 평

가받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향토유산 지정은 근현대 목포의 다양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완도군 노화 넓도 식수 비상...22일 운반급수

완도군은 820명이 사는 노화읍 넓도 수원지 고갈로 오는 22일부터 운반 급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노화읍 넓도제 저수율(총 저수량 11만6천t)은 15.42%로 81일 정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평년 대비 강수량이 66%에 그친 데다가 1일 120t을 생산하던 해수담수화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생활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일단 운반 급수를 하기로 한 데 이어 해수담수화시설 보완에 나섰으나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넓도에는 주민 520명과 김 양식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00여명 등 820명이 거주하고 있다. 1일 평균 주민 급수 사용량은 220t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1004섬 신안상품권’ 상반기 12% 할인 운영

설 명절 다음달 15% 할인을 적용

신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섬 신안상품권'의 올해 상반기 할인율을 12%로 운영한다. 신안군은 설 명절이 포함된 내달에는 특별 할인율을 15% 적용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1004섬 신안상품권'은 지난해 57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상품권 강, 허위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섬신안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체감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이 운영하는 벼 신품종 실증포.

## 영광군,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 벼 발굴

신품종 비교·전시 실증포 운영

영광군이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 벼 발굴을 위해 신품종 비교·전시 실증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증포에 최신 육종된 벼 신품종을 재배,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하고 병해충 저항성과 생산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신동진1호, 황금예찬, 전남13호 등 3~4종의 품종을 약 3천300㎡에 재배 실증할 예정이다. 품종별로는 신동진1호는 밥맛이 우수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키다리병에 강한 특성을 지닌 대체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금예찬은 매향과 찰쌀의 중간 계통 품종으로 찰기가 우수하고 밥맛이 좋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13호는 키가 작고 벼알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도복성이 뛰어나고 흰잎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췄다. 군은 실증포에서 각 품종의 생육 특성, 병해충 저항성, 생산성, 미질 등을 종합 평가하고, 영광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농가에 유용한 품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증포 운영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고품질 벼 품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이 기후와 농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세월극

## “항상 준비된 태세로 책임해역 사수에 총력”

고승범 해군 제3함대사령관

“책임 해역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해군 제3함대사령관으로 취임한 고승범 소장은 “남해는 국가 간의 해양패권 경쟁이 접하는 지점이자 해상 연결의 허브로 3함대는 이를 수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라며 항상 준비된 태세를 기반으로 책임 해역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사령관은 “전우에도 못처진 해군이 돼 군가와 합성이 넘치는 역동적인 부대를 만드는 데 매



진하겠다”라며 “활기차고 서로를 격려하는 3함대 건설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고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9기로 1995년 해군 소위로 입관한 후 천지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 2처장, 인천해역방어사령관, 해군본부 감찰실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